

가족학대 아버지 10대가 살해

96.12.10

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(존속살인)로 이아무개(19·부산 남구 대연2동)군을 긴급구속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8일 오후 9시10분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자던 아버지 이아무개(50·영도상리복지회관 총무)씨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실신시킨 뒤 부엌에 있던 흉기로 목등을 찔러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경찰조사 결과, 이군은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한달전 대구 친척집으로 피신한 외할머니(83)와 어머니(43)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. 부산/최익립 기자

없고 딸과 아들이 반듯이 누운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미뤄 이들이 액화석유가스나 보일러 배기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. 정광섭 기자